

여수시, 순천정원박람회 '낙수 효과' 노린다

관광안내 홍보관 설치·셔틀버스 운행 검토 이순신대교·여수 밤바다 등 테마상품 개발

여수시가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 여부의 성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섰다.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해야 인근 지역으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수시가 마련한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윈윈(Win-Win) 전략'의 핵심은 ▲관광수용태세 ▲숙박·음식 ▲도로·교통 ▲시가지 환경정비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 6개 분야다.

가장 눈에 띄는 관광의 경우 정원박람회 관람객 100만명을 유치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원박람회 관람객을 여수로 끌어들이기 위해 박람회장에 관광안내 홍보관을 운영하고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추한다.

또 수도권 여행사와 시도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해 정원박람회 관람객의 여수 관광을 유도할 방침이다.

홍보물과 팸플릿 등을 계절별, 콘셉트별로 다양하게 제작하고 광역도시권에는 대형이미지 광고로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이순신 대교와 국가 산단, 박람회장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고 365개 테마 섬과 산단을 둘러보고 여수밤바다를 즐기는 야경상품과 '여수테마여행 철도 관광 상품'도 마련했다. 여자만 갯노을 공원과 묘도 봉화산공원 조성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숙박과 음식분야의 경우 박람회 개최 기간 나타났던 바가지 요금과 불



조종훈 순천시장이 14일 일본 국회를 방문. 순천만정원박람회에 대한 일본 정부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아이오우 터쿠 농업수산성 부대신, 나카소네 히로후미 지민당 참의원 회장, 조종훈 순천시장, 양동의 순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 본부장. (순천시 제공)

친절로 인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음식 요금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권 소지자에 대한 할인혜택과 함께 관광업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해 친절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로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도

로·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역할을 톡톡히 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를 이용해 최상의 교통흐름을 제공하고 각종 도로표지판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수시 콜센터 직무교육 강화, 순천정원박람회 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여수박람회 재개장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종합주식회사 마침내 설립

7번째 어업인 출자회사...가공식품 개발·판매 확대 기대

전남도는 최근 어업인주식회사인 여수종합주식회사가 설립됐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 내 통합 양식어업은 483여개가 참여해 68건의 어업권으로 396ha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전국 대비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산량은 3만t에 이르며 이로 인한 소득은 250억원이다.

여수종합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컨설팅 업체인 교보증권에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도와 시군, 교보증권이 합동으로 통합의 규모화·기업화 필요성에 대한 어업인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해 각고의 노력 끝에 양식 어업인들의 공감대를 얻어냈다.

이어 출자 의향조사 및 주식 청약을 실시해 여수 종합양식 어업인 33명이 자본금 6억5000만원

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설립된 여수종합주식회사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각 4억원, 회사 부담 2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 여수 돌산읍 금봉리에 4042㎡(1227평) 규모의 통합 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해 통합 저장·처리,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판매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상욱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여수종합주식회사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행정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다"며 "복합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남도내 어업인 출자로 만들어진 주식회사는 장흥 무산김, 완도전복, 신안 새우젓, 여수 녹색멸치, 신안우럭, 여수새고막 등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시, 청년실업·중기 인력난 해소 총력

광양상의 등 5억 투입 '중기 청년인턴 사업' 인건비 지원·정규직 전환 등 고용촉진 유도

광양시가 청년실업 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데 이어 심사를 거쳐 15일까지 대상 업체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씩 인턴 기간인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6개월간 월 8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구직자에게는 6개월간 20

만원씩 취업 장려금도 지급하게 된다.

인턴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광양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단체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한 단체다.

특히 올해는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5인 이하의 농·어업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은 전남도종합일자리센터(http://job.jeonnam.go.kr)를 통해 18일부

터 접수가 가능하며 광양 희망일자리센터(061-797-3352)에서도 구직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및 실업자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방송통신 및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하다.

광양상공회의소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회원사 여부에 관계없이 광양만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250여명의 인턴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양상의는 청년인턴제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잠재된 광양만권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장학금 1000만원 전달

순천시는 14일 해룡면 읍촌산단 소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장한 청소년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1000만원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전달식에는 정순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장, 김수일 한빛봉사대 대표, 정민기 순천시 사회복지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직원들로 구성된 '한빛봉사대'와 협력사 직원들로 구성된 '패밀리봉사



대'에서 지난해 12월 바자회를 통해서 마련한 것이다.

김수일 한빛봉사대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화합에 최선을 다한

학생들을 위로하고 미래 사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전북

군산시, 100년만에 지적재조사

경계 분쟁 등 주민들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군산시는 14일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가 실제로 등록된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전체 면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뒤 경계 분쟁 및 집단지 불합지역의 15%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또 나머지 15%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으로 대신한다.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

는 70%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좌표를 바꾼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되며, 전역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된다.

우선사업 선정 대상 지역은 1912년 시가지제 징수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측량방법을 적용해 작성된 시가지 특별소삼자 지역으로,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사업지구 내 주민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군산=박승익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부안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내에 건립된 고창황토문화체험관이 최근 개관했다.

고창 황토문화체험장 문열었다

군, 3년간 19억 투입 불한증막·황토구들찜질방 등 갖춰

고창 부안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단지 내에 건립된 고창황토문화체험관이 최근 개관했다.

고창군에서 신성장산업으로 황토 산업을 육성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고창황토문화체험관은 지난해 말 준공 후 수탁자로 코리아캠핑(주)을 선정한 바 있다.

고창지역은 전체면적(607km)의 46%(281km)가 황토로 뒤덮여 있는 고장으로, 이번 황토문화체험관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황토를 이용 건축된 전통 직방방식의 불한증막과 황토구들찜질,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추후 황토를 이용한 웰빙제품을 선보일 전시·판매장과 황토 마사지·천연염색·토기제작 체험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질 좋은 황토에서는 원적외선이 방출돼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돕고 발한작용 촉진, 생체에 쌓인 노폐물 배출, 진정, 항균·곰팡이 번식억제 및 계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읍이온 발생으로 유해물질 방출, 정화·분해력이 뛰어나 인체의 독을 제거한다는 자료가 나와 고창황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고창복분자클러스터는 총사업비 715억을 투자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창복분자연구소와 숙박이 가능한 편백나무 펜션 '캠핑리조트'가 운영 중이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예술의거리 조성 오늘 주민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15일 오전 지리산소극장에서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남원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억원의 예산으로 구 군청 일원과 광한루원 북문 일원의 구도심권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젊은이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먹자거리와 연계,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단신

정읍시, 꽃두레 권역사업 주민발표회

정읍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발표회가 지난 13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권역 대표 소득사업 발굴과 법인화 과정 등 지난 1년 성과를 토대로 향후 소득사업과 연계된 경영

과 체험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만든 사업계획서를 주민대표가 직접 발표했다.

꽃두레 권역사업은 소성면 보화리와 신천리, 중광리 3개 리 13개 마을을 권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64억여원을 투입해 지붕과 담장 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과 함께 소득증대와 지역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시,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아카데미' 운영

전주시는 오는 3월7일부터 4월12일까지 마을만들기 초급 전문가 양성 과정인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시는 마을리더양성 과정, 마을재생활성화 운영 등 본격적인 마을재생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처음 실시하는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 전공 또는 활동 경험이나 관심이 있는 자 등으로, 수료 후 마을재생활고 운영 및 마을재생활성화 코디네이터로서 현장에 투입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남원보건소, 저소득층 아토피 환자 의료비 지원

남원시보건소는 14일 "장기간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아토피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아토피피부염 진단자로서 전국구 구평균소득 100%이하(직장·지역 혼합 4인 기준 월 건강보험료 13만원 정도) 가정 구성원이다. 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및 진단 이후 치료 관련 의료비용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4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중기청·전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전라북도도와 순창군,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가 14일 순창군 청소년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과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도가 올해

지원시책을 집중 설명했다.

또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순창군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도 함께 설명했으며, 유관기관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일대일 상담도 이뤄졌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 전통장류제조사 첫 배출

군, 40명에 수료식도

장류의 고장 순창군이 '순창전통장류제조사'를 처음으로 배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총 4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장류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순창전통장류제조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순창전통장류제조사 교육과정은 전통장류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됐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민간자격증으로 등록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전북대 생명공학분원에서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순창전통장류제조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40명의 신청자 가운데 36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순창의 전통장류 제조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온 수강생들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